

일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 현, 조미경*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Influence of Gri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Hyun Jeong, Mee-kyung Cho*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D시의 간호학과 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20일부터 2019년 06월 07일까지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주요 영향요인은 긍정심리자본, 전공만족도, 주관적 성적, 종교가 진로준비행동의 32%를 설명하였고, 그릿은 진로준비행동의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주제어 : 진로준비행동, 긍정심리자본, 그릿, 간호대학생, 융합사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Gri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convergence societ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May 20, 2019 to June 07, 2019 for 220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in City 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It was found that: nursing students showed highe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ase of higher level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er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 Major satisfaction,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Religion, and explained 32%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gri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t is necessary to active support such a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grams to strengthen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Grit, Nursing College Students, Convergence societ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생들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1]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대학생들은 자신의

특성, 흥미, 가치 등을 심도 깊게 통찰하여 진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2]. 진로준비행동이란 올바르게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해 개인이 수행하는 행동이나 혹은 진로 결정 이후 진로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지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3]. 학교에서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이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대학생 시기에

*Corresponding Author : Mee-kyung Cho(mkcho@hit.ac.kr)

자신의 진로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질적인 진로관련 준비행동을 실행하는 것은 직업인으로서 성공적 이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4]. 체계적인 진로 준비가 부족한 경우 잘못된 진로선택을 하게 되고, 높은 이직률로 인해 개인과 사회의 비용 부담이 과중해지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4].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의 간호사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증원하였으며, 그 결과 최근 3년간 매년 배출되는 간호학과 졸업자 수는 2만 명이 넘어서게 되었다[5]. 이와 같이 해마다 배출되는 간호사의 수에 비해 간호대학생들이 주로 취업하기 원하는 대학병원의 간호사 수요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취업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6]. 결국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일반 대학생들과 같이 간호대학생들도 충분한 진로준비행동이 필요하다.

타 전공 대학생의 경우 진로준비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4,6,8].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 진로 성숙 등 진로에 대한 인지, 태도 측면을 다룬 연구나 [4,9],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수의 관계를 파악하는 단편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6, 10]. 간호학과 학생들의 장기적인 목적달성이나 긍정적 내적요인과 관련된 인간의 심리 속성을 반영한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릿은 자신이 세운 목표에 대한 열정이나 끈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며 꾸준히 작업을 하는 노력으로 정의되고 있다[11]. 그릿은 다양한 직업장과 연령에서 개인의 성취, 진로,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수이다[11,12]. 그릿이 높은 학생들은 그릿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으며[13], 대학생활 역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또한 그릿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5].

긍정심리는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요소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유능하게 기능하여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시키는 인간의 심리 속성을 말한다[16].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로, 심리적인 강점을 기반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변수이다[17]. 또한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활용하여 능동적인 사고와 행동을 함으로써 학업이나 조직에서도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17]. 또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전공만족과 학습몰입 등과 같은 변인들과의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으며[18],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이직의도[19], 직무만족[20]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18, 21]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요인일 뿐 아니라, 진로 관련 변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22]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간호대학생들의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요인들로서, 정적 관계를 갖는다[23]. 앞선 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요인들은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의 대학교육 과정 동안 학습과 훈련을 통해 향상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제시하여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이들 간 전반적 높고 낮음과 관계를 연구하는 반복연구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요인 중에서도 간호교육 과정을 통해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을 확인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그릿,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그릿,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한다.
- 3) 간호대학생의 그릿,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D시의 4년제 간호학과 학생 222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20일부터 2019년 06월 07일 까지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필요성을 듣고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G·power 프로그램에서 투입될 독립변수 1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 수는 199명 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222명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220명의 설문 응답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그릿

본 연구에서는 Duckworth 등[11]이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Grit-O)를 Lee와 Sohn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관심의 일관성(Consistency of interests), 노력의 꾸준함 (Perseverance of effort)의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6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1, 3, 5, 7, 10, 12번 문항은 역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그릿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와 Sohn의 연구[13]에서는 Cronbach's α =.79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2 이었다.

2.3.2 긍정심리자본

본 연구에서는 Luthans, Youssef & Avolio[16]에 의해 개발된 긍정심리자본질문지(PCQ)를 Luthans, Luthans와 Jensen[24]이 대학생용으로 수정한 것을 Kim[22]이 한국 대학생용으로 변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희망, 자기효능감, 탄력성, 낙관성의 4개 하위영역 각각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6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3이었다.

2.3.3 진로준비행동

본 연구에서는 Kim & Kim [25]이 개발한 도구로 16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Kim & Kim [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7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그릿, 긍정심리자본, 진로준비행동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검정을 사용하였다. 그릿, 긍정심리자본, 진로준비행동간 관계는 Pearson's 상관계수로 분석하였으며,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No. 1041490-20190429-HR-005)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연구 승인 후 연구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면동의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연구 진행 도중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수집결과는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명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과 같이, 23세 미만이 76.4%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성별분포는 여성 87.3%, 남성 12.7%였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38.2%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가족과 함께 주거하는 대상자가 37.3%, 경제 수준은 79.0%

의 대상자가 '중'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전공만족도는 95.5%의 대상자가 중간 수준 이상으로 만족하였다. 대상자가 원하는 취업 형태는 '대학병원' 49.6%, '종합병원' 25.0%, 그 외 '공무원' 6.4%, '보건교사' 6.4%, '해외 취업' 4.0%, '기타' 8.6% 순 이었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취업' 40.0%, '가치' 20.0%, '적성' 20.0%, '성적' 9.1%, '주변의 권유' 5.9%, '안정적 직장' 2.7%, '기타'

2.3% 순으로 나타났다.

3.2 그릿, 긍정심리자본, 진로준비행동 정도

Table 2와 같이 그릿은 5점 만점에 평균 3.19점이었다. 긍정심리자본은 6점 만점에 평균 4.84점이었고, 진로준비행동은 4점 만점에 평균 2.69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Differenc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20)

Characteristics	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SD	t/F (p)	
Gender	Male	28 (12.7)	2.71±0.53	0.978 (.329)
	Female	192 (87.3)	2.60±0.47	
Age		22.44±5.44		8.405 ($<.001$) a<b
	<20 ^a	80 (36.4)	2.53±0.44	
	21-23 ^b	88 (40.0)	2.86±0.58	
Grade				3.961 (.009) a<c
	1 ^a	90(40.9)	2.55±0.42	
	2 ^b	36(16.3)	2.78±0.63	
	3 ^c	47(21.4)	2.82±0.55	
Religion				2.888 (.004)
	Yes	84 (38.2)	2.82±0.52	
	No	136 (61.8)	2.61±0.51	
Living	With family	82 (37.3)	2.69±0.48	-0.118 (.096)
	Alone	138 (62.7)	2.70±0.55	
Economy				2.636 (.074)
	High	21 (9.6)	2.86±0.48	
	Moderate	174 (79.0)	2.70±0.53	
Major satisfaction				8.409 ($<.001$) a>b, a>c
	Low ^c	10 (4.5)	2.29±0.52	
	Moderate ^b	116 (52.7)	2.61±0.53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18.087 ($<.001$) a>b>c
	High ^a	26 (11.8)	3.07±0.58	
	Moderate ^b	140 (63.6)	2.74±0.48	
Desired job type				1.182 (.319)
	Low ^c	54 (24.6)	2.40±0.45	
	university hospital	109 (49.6)	2.74±0.54	
	general Hospital	55 (25.0)	2.68±0.54	
	public official	14 (6.4)	2.70±0.46	
	public health teacher	14 (6.4)	2.80±0.56	
Application motivation				1.339 (.241)
	overseas employment	9 (4.0)	2.62±0.25	
	others	19 (8.6)	2.44±0.42	
	Get a job	88 (40.0)	2.64±0.56	
	For value	44 (20.0)	2.72±0.51	
	Aptitude	44 (20.0)	2.76±0.48	
	Advice	13 (5.9)	2.89±0.57	
Steady job according to grades				2.77±0.56 2.49±0.39 2.95±0.51
	Other	5 (2.3)	2.95±0.5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220)

Variables	Mean±SD	Min	Max
Grit	3.19±0.42	1.92	4.58
Psychological Capital	4.84±0.75	2.33	6.7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69±0.52	2.50	4.0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차이

Table 1과 같이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은 나이 (F=8.41, p<.001), 학년 (F=3.96, p=0.09), 전공만족도 (F=8.41, p<.001), 주관적 성적(F=18.01,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학년과 3학년, 20세 미만과 21-23세 그룹 간에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만족도를 ‘상’으로 높게 응답한 그룹과 ‘중’이나 ‘하’로 응답한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주관적 성적을 ‘상’으로 응답한 그룹과 ‘중’, ‘하’로 응답한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4 그릿, 긍정심리자본,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Table 3과 같이, 진로준비행동은 그릿(r=.176, p=.009), 긍정심리자본(r=.27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Gri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220)

Variables	Correlation		
	1	2	3
	r (p)	r (p)	r (p)
Grit	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278(<.001)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76(.009)	.470(<.001)	1

1. Grit; 2.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5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

진로준비행동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그릿 및 긍정심리자본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나이, 학년, 종교, 전공만족도, 주관적 성적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832로 자기상관이 없었다. 공차한계(tolerance)는 0.702~0.979, 분산팽창계수(VIF)는 1.022~1.410로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요인 변수들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12.44, p<.001), 진로준비행동의 주요한 예측 요인은 긍정심리자본(β =.33), 종교(β =.16), 주관적 성적(β =.13), 전공 만족도(β =.12)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은 32%였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220)

Variable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β	t	p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ref. moderate)	High	-.129	-2.12	.036
	Low	.049	0.80	.427
Major satisfaction (ref. moderate)	High	-.124	-2.07	.039
	Low	.077	1.33	.185
Religion		.155	2.74	.007
Grit		.055	5.33	.352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333	0.93	<.001
Adj. R ² =.32, F=12.44.,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예비 간호사의 효율적 취업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그릿은 5점 만점에 평균 3.19±0.4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그릿을 조사한 Cho & Yun[26]의 3.19±0.48점과, 대학생의 그릿에 대한 Seo & Lee[27]의 연구에서 3.14±0.48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한편, 자연과학계열 대학생으로 한 Kang et al[15]의 연구의 3.50점 보다 다소 낮은 결과로, 간호대학생이 타 전공 대학생에 비해 관심의 일관성과 노력의 꾸준한 정도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간호직종이 타 직종에 비해 응급상황과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압박감, 소진 등으로 인한 낮은 그릿[26]과 관련지어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간호학과의 특성 상 과중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커리큘럼을 해내야 하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4], 스스로 간호학이라는 학문에 흥미를 느끼기 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노력으로 버티고 잘해내고자 하는 동기 등이 작용하여[26] 낮은 그릿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교육 커리큘럼 등에 개선과 이에 대한 적절한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에 대해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6점 만점에 평균 4.84±0.75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에 대해 같은 도구로 측정한 3.83 ± 0.55 점[21]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긍정심리자본 4.27 ± 0.71 점[28]과는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의 세부 영역 별 점수는 자기효능감 5.08점 낙관성 5.08점, 탄력성 5.08점, 희망 4.86점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하위영역 점수[21]는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과 낙관성 점수가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28]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성 순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탄력성이 타 전공 대학생에 비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긍정심리자본의 문항별 점수에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정보를 자신 있게 제공할 수 있다'가 5.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과 교육과정 특성 상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보건의료환경의 교육적 역할과 정보제공에 대한 다양한 학습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점수는 2.69 ± 0.52 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29]의 연구의 2.59 ± 0.50 점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27]의 3.02점보다는 다소 낮았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보면 정보수집활동 2.95점, 도구준비활동 2.68점, 목표달성활동 2.50점 순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27]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도구를 준비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목표달성활동까지 도달하는 것이 다소 부족하여, 보다 진로준비행동을 실제적으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 및 교과외 활동 등이 필요하다.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유의한 영향요인이라는 선행연구[18,21]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28]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다양한 성과를 위한 활동을 많이 수행한다는 선행연구[22,28,30]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간호대학

생의 위기 상황 극복과 긍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그것은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그것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15, 27, 31]와는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그것에 대한 개념분석[32]에 의하면 '국가고시 합격과 면허 취득', '졸업 후 간호사의 역할', '간호학사 학위 과정 완수'라는 목표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그것과 진로준비행동이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인 것은 국가고시나 학위과정 완수 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은 1-2학년 학생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졸업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것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 종교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가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33]와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종교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선행연구[34]과 연결되는 결과이다. 진로준비행동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다양한 종교 활동의 장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의 예측 변수라는 결과[10]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이라는 결과[33]와 맥을 같이한다. 전공만족도는 간호학과에 대한 자부심이나 대학생활 및 학업 외에도 교수 혹은 선·후배의 관계를 통해 높일 수 있다[35]. 따라서, 지도교수의 상담이나 선·후배간의 만남[10], 재학생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 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몰입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다는[18]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성적은 명확한 목표제시나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긍정심리자본, 전공만족도, 주관적 성적, 종교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자신의 전공에 대한 자부심,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처하는,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주어질 때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할 것이다.

이는 향후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한 모형구축이나 증재를 위한 이론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편의추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결과가 적어 일관된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아, 추후 대상 지역과 학교를 넓혀 반복 및 확대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W. M. Teng, S. Pahlevansharif & J. J. Turner. (2019). Graduate readiness for the employment marke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velopment of soft employability skills. *Educ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61(5)*, 590-604.
- [2] Y. J. Ko & I. K. Ki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62-71.
- [3] B. W. Kim & K. H.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311-333.
- [4] J. I. Choi, T. Y. Han & Y. H. Lee. (2014).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of physical education major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3(5)*, 113-126.
- [5] Korean Nurses Association. (2019). Korean Nurses Association. Name of Web Site. <http://www.koreanurse.or.kr/resources/tatistics.php>
- [6] K. A. Lee & J. H. Kim. (2015).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2(2)*, 42-49.
- [7] J. A. Seong, S. Y. Bang & S. Y. Kim. (2012).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Holistic Health Science, 2(2)*, 29-3
- [8] J. G. Kim. (2012). The study on the effects of individual's and environ mental characteristic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25(3)*, 161-179.
- [9] H. S. Yon, Y. M. Hwang, D. B. Kim & S. H. Jang. (2011). The effects self-differentiation stress coping methods and mental health on life adjustment in University.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10(2)*, 1-25.
- [10] T. J. Jang & M. Moon. (2016).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4)*, 344-352.
- [11]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 D. R. Kelly.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12] L. Eskreis-Winkler, A. L. Duckworth, E. P. Shulman & S. Beal. (2014). The grit effect: Predicting retention in the military, the workplace, school and marriage. *Frontiers in Psychology, 5(36)*, 1-12.
- [13] S. R. Lee & Y. W. Sohn. (2013). What are the strong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deliberate practice and gri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0(3)*, 349-366.
- [14] S. J. Lee & J. Y. Park. (2018). The 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2)*, 269-276.
- [15] M. H. Kang, S. H. Yoon, D. H. Kim & D. G. Ryoo. (2016).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gri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 and major interest of natural scienc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5(4)*, 109-129.
- [16] M. E. Seligman & P. M. Csikszentmihalyi. (2000).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5(1)*, 5.
- [17] F. Luthans, C. M. Youssef & B. J. Avolio. (2007). Psychological capital: Investing and developing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Positive*

- organizational behavior*, 1(2), 9-24.
- [18] J. M. Song & D. H. Yoo. (201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with major, learning immer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according to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27(2), 209-222.
- [19] M. R. Jung & E. Jeong. (2017).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stress in adolesc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7(12), 399-407.
- [20] S. Y. Jun. (2017). Influences of burnout, emotional labor,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job satisfaction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3(2), 201-210.
- [21] S. W. Lim, H. S. Jung & M. S. Song. (2021).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rofessor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4), 386-395.
- [22] J. S. Kim. (2013).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Employment-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6(4), 31-59.
- [23] E. Jeong & M. R. Jung. (2018).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 on gri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9), 309-317.
- [24] B. C. Luthans, K. W. Luthans & S. M. Jensen. (2012). The impact of business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capital on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87(5), 253-259.
- [25] B. W. Kim & K. H.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311-333.
- [26] S. H. Cho & K. S. Yun. (2020). Effects of Grit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4(2), 117-129
- [27] H. J. Seo & J. Y. Lee. (2021). The Relationships Among Grit,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4), 1259-1284.
- [28] C. H. Woo & J. Y. Park. (2017). Specialty satisfac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in nursing students: A cross-sectional survey. *Nurse education today*, 57, 24-28.
- [29] K. H. kim. (2021). Influences of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ed 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9), 307-314
- [30] K. Y. Kang & J. K. Lee. (2017).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relations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related variable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4(1), 41-67.
- [31] H. B. Lee & K. S. Ham. (2021). The Social Support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0), 809-818.
- [32] J. Y. Lee. (2019). A Concept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Grit Using Hybrid Model. *Crisisonomy*, 15 (12), 141-153.
- [33] I. O. Moon & G. W. Lee. (2010).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83-91.
- [34] H. S. Kang. (2010). The relationship among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stress confrontation strategi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3(3), 141-155.
- [34] M. H. Jeong & M. A. Shin.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170-177.

정 현(Hyun Jeong)

[정회원]



- 2015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석사)
- 2018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기초간호학, 간호관리, 간호교육
- E-Mail : hyunjeong@hit.ac.kr

조 미 경(Mee-kyung Cho)

[정회원]



- 1985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1990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0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6년 9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간호윤리
- E-Mail : mkcho@hit.ac.kr